

佛事 아닌 不事하는 곳에는 시주를 하지 말라

대도행 배차년 보살

법정 스님이 “갑천 가는 표를 사가지고는 대구를 가지는 못한다. 셋길로 다니지 말고 큰길로 다니면서 바른 정진, 정법행(正法行)하라”고 재재질한 대도행(大道行) 배차년 선생(80)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 부처님 앞에서 열심히 복을 빌었다.

아이고,
저 스님은 아는 신도도 없는 갑다.

“우리 젊었을 때는 대처가 뭘지 비구가 뭘지 몰랐어요. 스님이면 다 스님인 줄 알았지.” 막내 율케가 법정 스님이 주필로 있던 불교신문 전신인 ‘대한불교’ 기자였는데, 형님이 다니는 데는 젊은 부처님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선생은 부처님이면 다 같은 부처님이니 젊은 부처, 그런 부처가 어디 있느냐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안타까워하던 율케는 봉은사에 법정 스님이 계시는데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간곡히 권했다. 혼자 불쑥 찾아가기도 쑥스러워 기압이 지내던 동생뻘이 되는 이에게 봉은사에 법정이란

서울 봉은사에서 법정 스님을 처음 만나
무명웃 한 벌 입고 있던 첫인상 선해

대도행 불명까지 손수 지어주시며
〈선가귀감〉으로 공부하라 신심 당부

스님이 계시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 이는 남편이 스님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자기는 2년 후배라며 기꺼워했다. 봉은사를 찾은 두 사람, 종루 앞에서 스님 한분을 붙잡고 법정 스님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나 뵈기를 청했다. 그 스님은 그냥 찾아가면 만나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스님 얼굴을 알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 스님을 만나라고 했다. 그때 한창 민주화 운동을 하던 스님을 형사들이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탓에,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혹시 곤혹이라도 겪을까봐 잘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겁이 나서 잘 찾아오지도 못했다. 잠시 뒤 공양을 마치고 나오는 스님을 알아본 후배가 “저 사람이야 저사람!”이라면서 쫓아갔다. 스님은 고향후배를 알아보고는 “어떤 일이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선생은 법정 스님을 만나기 전, 봉은사 행사에 간 적이 있었다. 스님들이 모두 모직 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한 스님만 뻗뻗하게 풀 먹인 무명웃을 입고 있었다. 속으로 ‘아이고 저 스님은 아는 신도도 없는 갑다’며 저 스님 옷을 한 벌 헤드리면 좋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을 만나고 보니 바로 그



스님이 아닌가. 스님과 가까워진 뒤에 선생은 스님에게 당시 나이 원이 되기 전에는 절대 모직 옷을 입지 않고 삼베와 무명웃만 입겠다는 말씀을 들었다. “옷을 하려고 하면 면으로 된 옷감이 별로 없어요. 동대문시장에 가서 해매고 해매다가 학생들이 해 입는 감이 있어서 동방을 헤드렸더니만 늘 그거 하나 입고 사셨어요.”

그 날은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가벼운 인사만 건네고 일어나면서, 오늘은 느닷없이 찾아왔으니 스님 시간이 날 때 다시 찾아봐요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은 며칠 뒤에 오라고 했다. 약속한 날에 대려현을 다시 찾은 선생은 그전에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한테 부적을 써 받았던 얘기를 별 생각 없이 드렸다. “희한한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스님이 ‘보살님 몇 살이세요?’ 하고 물어요. 임신생인데요. 그러니까 손으로 방바닥을 탁 치면서 우리 임신생들은 바보가 없는데 어디서 저런 바보가 하나 왔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바보라는 말에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라푸르라 하는데, 스님은 아랑곳도 않고 ‘보살은 불명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불명이 뭐예요?’ 하고는 통명스럽게 되물었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아휴!’ 하고 한숨을 팍 쉬시더니, 내가 여태 스님 노릇을 하면서 여러 사람이 불명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도 지어주지 않았는데, 보살님을 보니까 화가 나서 지어준다면서 뒷새 뒤에 불명 찾으러 오라하더라고요.”

셋길로 다니지 마라
스님들과 뭘 도모하지 마라

며칠 있다 가니까 후배에게는 대원행(大願行), 여사에게는 대도행(大道行)이라 지어서 오게와 함께 주었다. 그동안 셋길로 다녔으니, 이제부터는 큰 길로만 다니라고 대도행이라고 이름 지었으니까 부처님에게 절을 세 번 올리라 일었다. “뭘도 모르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했어요. 찾아가셨을 때 자리에 계시면 만나지 않겠다는 소리 안하고 얘기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껏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주니까 재미가 나서 자주 다녔죠.”

법정 스님은 불명을 지어 주면서 말씀했다. 먼저 어디서건 회장을 맡지 마라. 그리고 스님들과 뭘 도모하지 마라. 만약 도굴을 짓기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님들은 걸망지고 떠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면 뒷감당은 고스란히 보살 몫이 된다. 아울러 부처불(佛) 불사(佛事)를 하는 데는 시주를 해도, 아니 불(不)사(不事)를 하는 데는 시주하지 마라. 이제 가지만 잘 지키면 좋은 보살, 일등보살이 된다. 특히 아니 불(不)사, 불사에 동참하지 않아야 공범자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씀했다. “진짜, 진짜로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때 스님은 〈불교성전〉을 주면서 가져가서 공부하라고 했다.

“〈불교성전〉을 잠도 자지 않고 읽었어요. ‘너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니?’ 하고 모두 내 들으라고 맥살

잡아 흐드는 소리 같아서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그 모습을 본 우리 집 영감이 어디 가서 좋은 스님 만났네. 그러더라고.” 다 보고나서 스님을 찾아가 다 봤다고 하니가 〈선가귀감〉을 내주면서 보살님은 어려워 보기에 힘들 테니 처사님 갖다드리라고 했다. “오기가 나서 영감을 주지 않고 내가 봤습니다. 뭐 대충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넘어가기도 하고, 책 끄트머리가 나달나달해지도록 읽었어요.” 한 번은 가니까 스님이 〈선가귀감〉을 처사님에게 드렸느냐고 물었다. “처사님 안 드리고 내가 봤는데요.”하고 답했더니 스님은 왜 기록한 부처님을 삼서근(麻三斤)이라 했냐고 물었다. “머투거리고 대답을 못하니까 스님이 옮겨서 읽으셨는지, ‘아, 잘됐다. 그거를 화두 삼아 공부해 하라’ 그래요. 화두가 뭘지도 모르는데.”

그 뒤로 또 얼마 있다 가니까 스님이 “보살님 공부 좀 했습니까?”하고 물었다. “아니요. 스님, 시골 사람한테 삼서근으로 배를 짜면 뭘 장이 나오는지 몰라 가지고 와서 대답할게요. 그러니까 스님이 배를 잡고 웃으시면서 그게 뭐 한 고개, 두 고개, 스무고개 해가지고 테레비타고 냉장고 타는 수수께끼인 줄 아느냐면서, 그걸 붙들고 자꾸 의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해 남짓 다녔을까. 스님은 송광사 뒤에 불일암을 짓고 내려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색이 바래서 내버려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을 만큼 낡은, 애들 포대기만한 다후다 이불 하나를 내놓았다. 산중에 가면 추울 테니까, 가져다가 보태지도 말고 때려치도 말고, 숨을 다시 타서 그대로 이불을 만들어다 달라고 했다. “얼른 받아다가 씻기 가지고 숨틀어서 이불을 만들어다 드렸어요. 스님이 대충 행거가지고 내려가시면서 상량식을 할 때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스님이 삼베옷을 챙기시면서 느닷없이 ‘서울 놈들은 내년에 더워서 다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는데 ‘내가 삼베옷을 다 싸가지고 가버리니까 서울 사람들은 내년 여름에 모두 더워 죽을 거라고’ 깔깔 웃어요. 그제야 알아듣고 배꼽을 잡았지요.”

그때는 교통편이 나빠 송광사 다니기가 많이 힘들었다. “몰아 몰아가 찾아갔더니 상량식이라고 스님들이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집만 하나 덩그러니 지어놔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눈물이 나더군요. 꼭 무슨 친정 피붙이를 산에 내뱉고 오는 기분이라. 어떻게 속이 상하는지.”

전화가 귀할 때여서 편지로 사연을 주고받았다. 겨울이 닥치니 산중이라서 손바닥만 한 덮개로는 추워서 안 되겠으니, 이불하고 요를 만들어 부쳐달라는 스님 편지를 받았다. “가로, 세로 얼마, 딱 이렇게 적어가지고, 절대로 사치하면 안 되고, 회색으로 해서 부쳐달라고. 동대문시장에 가서 회색 무명을 끊어다가 요하고 이불을 해서 내려주세요.” 그 뒤에 편지가 또 왔다. 전기는 어떻게 해서 넣었는데 전기

天氣福

현재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들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편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빨라져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부적으로만 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亡嚴父 南宮 后 人 行孝 伏魔 靈駕

고급 뱀나무 재질

울금으로 각인 후 금칠

울칠 마감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규격 大 / 中 / 小의 다양한 규격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기마음

민속죽염 23년 전통

초상의 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용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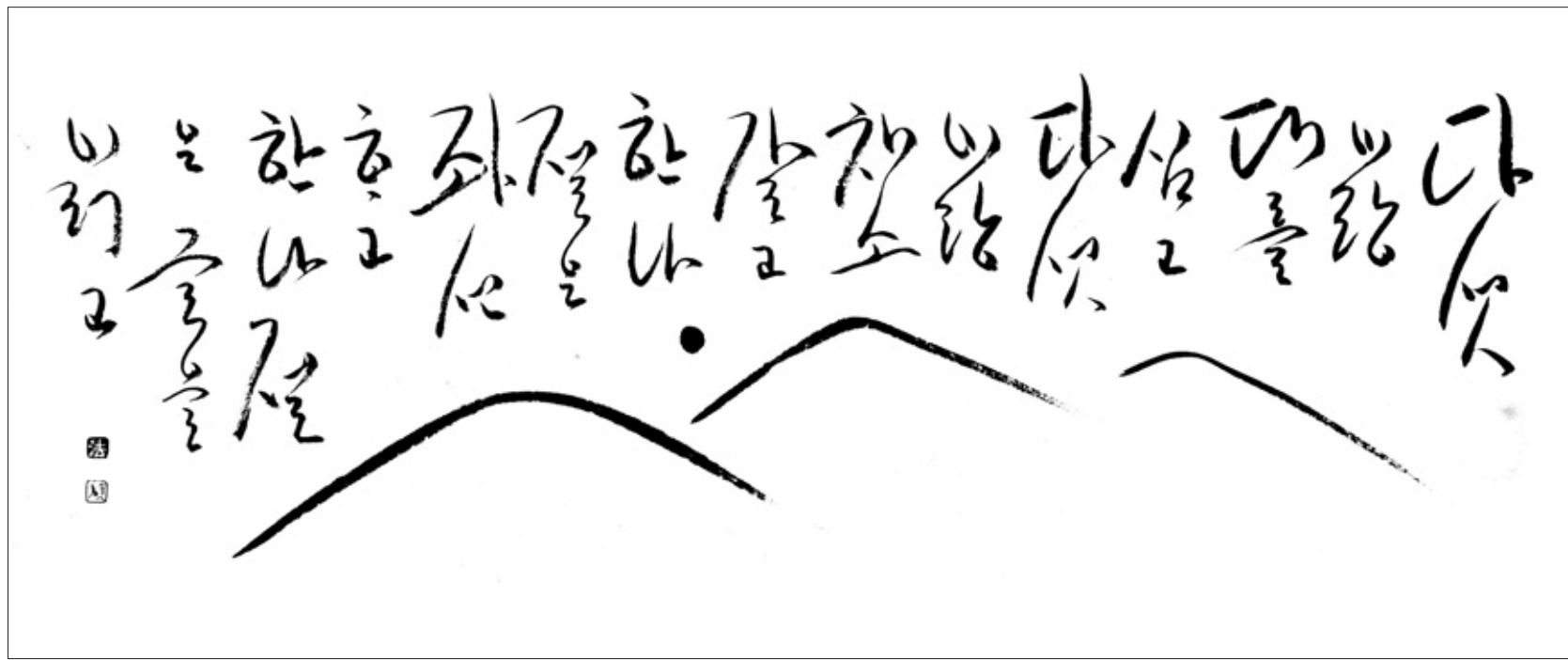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1kg 35,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4만원 미만의 배송비 3천원 적용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도행 보살이 소장하고 있는 법정 스님의 작품

세를 한 달에 만원씩만 부쳐달라고 했다. “한 번 딱 불이고 나니까 이력저력 괜찮으니까 앞으로 부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걸 해놓고 나면 또 뭣이 없었는지 처음에는 한 달에 여덟 번을 오르내리기도 했다. “빨간 가방에다가 뭐 여코, 뭐 여코 해가지고, 짙어지고 갔다가 또 오고, 갔다가 또 오고 그랬어요. 뭐 너무너무 없는 거라. 하루는 스님이 가방을 지고 앞을 내려가면서 ‘가방아! 너도 참 팔자도 사납다. 주인 잘못만해서 이 면대를 여러 번 따라 다니고...’ 늘 스님이 주자장까지 데려다 주곤 했어요.”

이듬해 여름방학 때 따님 은영이를 데리고 갔다. “봄에 내려갔는데 뭣이 궁금해가지고 또 내려갔더니 ‘보살님 풀 할 줄 알아요?’ 물으세요. ‘알죠’ 그랬더니 삼베옷을 시켜면 걸 하나 내 놓으면서 풀 좀 하래. 난 부모들이 삼베옷을 늘 입어서 풀을 아주 잘 하거든요. 풀을 해서 싹 다려놓으니까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것보다 세 번은 더 입는다고 그렇게 좋아해서...” 돌아오는 길 첫차를 타려면 아침을 일찍 먹고 빨리 와야 했다. 배웅 길. 다른 때 같으면 스님 혼자 ‘헿’ 하고 앞서 내려가는데, 그날은 중간쯤 가다가 멈춰 섰다. “딱 서서이니나 보고 앞으로 가라고 해요. 왜요? 그랬더니 앞에 가면서 이슬 다 씻고 가래. 나는 풀 먹인 삼베옷을 버리면 또 새로 풀을 해야 하는데, 보살은 집에 가서 씻으면 되니까 이슬을 쓸고 가라는 얘기에요. 하하.”

총무원이 코앞인데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

처사님과 함께 기도 다녀오셨더니 참으로 잘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時節因緣이 到來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씨는 보살님이 일찍이 뿌려두셨을 테니까요. 信仰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스스로 마음이 내켜야 합니다. 마음 내키기까지는 親近한 이웃의 간절한 發願이 있어야 합니다. 보살님 발원 영현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보살님이 너무 극성떨지 않으

나이 50되기 전에는 모직 옷을 절대 입지 않고 오로지 삼베와 무명옷만을 고집했던 법정 스님 송광사 뒤에 불일암 짓고 가신다고 하며 버려도 아무도 안주워갈 이불 내주셔 상량식 올라갔더니 집만 홀로 덩그러니

시면 처사님은 다 알아서 하실 테니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 나름의 價値觀이 확립되지 않으면 時流에 흔들리고 오염되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도를 계기로 佛緣이 더욱 충만하여 모든 일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두루 평안하십시오.

六월 十四일 申傘

스님은 선생이 불일암에 가면 대령이 왔으니까 저녁밥 좀 넉넉히 하라고 일렀다. 대령이는 땀방울이 얼굴을 가리키는 사투인데 땀방울이 얼굴은 줄기에 털이 있어 뭐든지 잘 달라붙기에 선생이 사람을 물고 다닌다는 말씀이다. “대령이 뒤를 틀림없이 누가 또 따라 올라올 텐데 다시 밥 하려고 하면 귀찮으니까 넉넉히 하라고 그러셨어요. 밥을 넉넉히 해 놓고 있으려나 어떤 남자 둘이 올라와서 왔다 갔다 해요. 스님. 손님 오셨는데 저녁 차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밥 먹어 보낼 사람 아니고, 그냥 왔다가는 손님이니까 아는 체도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스님, 누구데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줘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은 당신이 어찌 사나 감시하러 온 사람이라요. 한 번은 분은사 계실 때 종로 경찰서에 불려갔는데, 육박질러서 풀이얇히고 반말지거리를 험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김수환

추기경이 쫓아오셔서서 서장보고 이리 대접할 분이 아닌데 어딜 풀이 얇혔나면서 야단을 치고 난 뒤에야 결상에 앉으라고 했대요. 총무원이 바로 코앞인데 누구 하나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

배치년 선생, 처음에 스님한테 좋은 얘기 듣고 또 듣고 하나가 말뚝 신심이 일어나, 날이 새기가 바쁘게 이질 저질로 기도를 하러 다녔다. “자랑한답시고 스님에게 등을 다스려 전국 일주하고 마지막에 송광사엘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등을 달아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내가 말도 아닌 소리해 싸니 스님 답답해서 그러실 테지 하고 이해를 하다가도, 어쩔 때는 한 동갑인데 자기는 스님이라고 나를 괘시를 해?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여기 다시 오나라. 고개 짤랑짤랑 흔들고 올라와서는 조금 있으면 또 공금해요. 그래서 또 뭘 사서 부쳐요. 그런데 하루는 스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지금 있는 걸로도 충분하니 이제 그만 사 보내라고.”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문장을 잘 짓는 비결

송나라 철종 때 갈연지(葛延之)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불현듯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살던 시골마을을 떠났다. 불원천리 찾아 간 곳은 황량하기 그지없는 담이(岫耳)라는 시골이었다.

당대의 문장가인 소동파가 그곳에 귀양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갈연지는 소동파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 외진 곳까지 찾아 갔던 것이다. 그는 보고 싶은 소동파와 한 달 간이나 함께 지내는 기회를 잡아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

평소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큰 짐이 있어 고심 끝에 “문장을 잘 짓는 비결이 없겠습니까?” 라고 말문을 열었다.

소동파는 질문에 아랑곳 하지 않고 한가롭게 대문 밖의 오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천천히 대답했다.

“답주란 작은 고장이외다. 몇 백 세대가 사는 작은 고을이라고 해도 있는 건 다 있소이다. 재래시장에 나가면 무엇이든 다 살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걸 가져 오게 아니외다. 꼭 한 가지가 있어야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듯이 의미가 없으면 모든 지식과 전고(典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외다. 이것이 바로 문장을 짓는 비결이외다.”

갈연지는 소동파의 엉뚱한 대답을 듣고 망연 자실 했다.

그러자 소동파가 다시 말을 이었다.

“문장을 짓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물건을 사는 거나 같은 것이 아니겠소? 문장을 짓는 데는 꼭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외다. 마치 물건을 살 때 꼭 돈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문장을 짓는 재료나 지식들이 사서오경, 제자백가와 소설 및 역사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맘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외다. 꼭 한 가지가 있어야 그것들을 가져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미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듯이 의미가 없으면 모든 지식과 전고(典故)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외다. 이것이 바로 문장을 짓는 비결이외다.”

“고견이옵니다. 참으로 고견이옵니다.” 갈연지는 마치 꿈속에서 깨어난 듯 깨달음을 얻었다. 평소 마음에 지니고 있던 큰 짐을 일순간에 부러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소동파 앞에 덤적 없드려 절을 올렸다.

승객이 종착역에 도착하면 안내방송이 나온다. 그 내용은 한결같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십시오.”

이 방송이 나오면 승객들은 이내 한결 같이 주변을 둘러본다. 물건을 챙기기도 하고 선반이나 주머니를 확인하기도 한다. 우리가 정작 확인한 것이 있는데도 무심코 지나치기 일쑤다.

마음을 순간순간 클리해야 한다. 마음을 챙기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참나에 전달이 된다. 발신과 수신은 내 마음이다.

모든 물건은 발신자가 있으면 받는 쪽 수신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마음 작용의 오묘함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휴면 계좌가 그 효용이 없듯이 잠자고 있는 마음은 고목의 가지와 같아서 신축성이 떨어진다.

동물의 세계에서 느끼는 바 크다. 동물은 후각을 통해 종족번식을 위한 대상을 찾는다. 미묘한 냄새를 통해 상대를 파악한다.

번식기가 오면 암컷은 어떤 냄새를 발산하므로, 수컷은 냄새를 통해 암컷의 발정을 알아차린다. 발정의 냄새를 맡지 못하면 수컷은 암컷에게서 달아나고 만다.

육근(六根)이 청정해야 하는 이유가 동물의 세계에 절박한 일이다. 후각이 고장이 난다면, 아차 하는 순간에 이성의 냄새를 놓치게 되면 그 종의 종족번식이란 꿈꿀 수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아마 부지불식간에 종말을 맞이할 뿐이다.

의미가 없으면 지식도 무용지물
잡자는 마음은 고목 가지와 같아

인간은 후각기능이 자연 상태로 남아 있지 않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왜 후각기능이 퇴화했을까. 문화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후각기능의 파괴에 기인한다. 만약 동물과 같이 후각에 의지해 종족번식을 한다면 오늘날 같이 고도의 문화를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장소나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저 번식을 위한 행위만 자행될 뿐이다. 인간에게 있어 후각기능 파괴는 당연한 일이다. 문명사회 일수록 몸의 체취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열대지방 일수록 향수를 진하게 뿌리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인간의 체취를 감추고자 하는 위장이요 가장에서 나온 행위이다.

우리말에도 ‘냄새나다’는 말이 있는데 이 또한 후각을 억압하는 것이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 기억이 일어난다. 그 기억은 신기루 같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불후의 명작이나 걸작이 되어 문명사를 바꿔 놓기도 한다. 인류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천도 후각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통제는 불편함이나 고역이 아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밑거름인 것이다. 퇴화가 있어버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은 진화를 위한 초석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불교출판문화상 2년 연속 대상 수상!



사찰의 구석구석 불교미술의 해학

대상 2010 불교출판문화상

익살과 해학이라는 코드로 풀어낸 불교미술 이야기

260장의 사진과 함께 보는 사찰의 구석구석 숨겨진 우리 선조들의 익살과 해학!

권종서 글·사진 | 320면 | 윌리터 | 값 18,000원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대상 2011 불교출판문화상

KBS1 TV 대장경 천년 특집 다큐 4부작 <다르마>와 함께 읽는다!

대장경 뒤에 숨어 있는 역사적·문화적·기술적 가치를 찾아 나선 20년 대장경 연구자의 여적

오윤희 지음 | 400면 | 값 20,000원



행복을 늘리고 상처를 치유하는 마음의 기술 마음챙김 명상 멘토링

어지러운 생각에서 홀가분해지는 마음 운동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생각병 탈출법을 심리학자의 멘토링을 통해 배운다

김정호 지음 | 352면 | 15,000원

2011 올해의 청소년도서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고승 19명의 삶과 수행 근대 중국의 고승

세월에 부침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을 수행으로 생각했던 고승들의 뜻깊은 수행을 만나!

김영진 지음 | 360면 | 18,000원

201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역주 차제선문

초심자의 수행부터 고급 수행까지 수행의 필요 조건, 수행 중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서술하고 있다.

천태 지자대사 설·회교 역주 | 436면 | 35,000원

201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Tel. (02) 420-3200 Fax. (02) 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